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도연 소설가

집에 총을 든 헌병들이 들어닥쳤다. 그들은 나를 찾았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실려 끌려갔다. 트럭 안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나처럼 끌려온 사람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헌병에게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붙잡아 가는 거냐고 물었다. 헌병은 귀찮은 듯 서류를 뒤적거리는 중 시절 서류를 위조해 세 달이나 빨리 전역을 한 게 발각이 됐으므로 다시 군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서류란 대학 1~2학년 때 받은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저런 이유로 그 수업에 F를 맞으면 3개월

군대 이야기

해택을 받을 수 없었다. 즉 30개월을 꼬박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뒤 3개월 먼저 전역을 하는 사병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트럭의 집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일찍 전역을 했다가 들통이 나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갑소사! 내가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가만, 저 인간은? 트럭 안쪽에서 나를 주시하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전역하는 날까지 나를 괴롭혔던 Y병장이었다.

내 가슴은 쿵다거리기 시작했다. 저 인간과 또 군 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니…

이것은 내 꿈의 일부다. 오랜만에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꿈을 꾸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놀란 내 가슴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왜 오래전에 사라졌던 꿈이 되살아났을까. 군대란 곳이 과연 무엇이기에 남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떤 계기만 있으면 유령처럼 되살아나는 것일까.

군대에 대한 꿈은 이것 외에도 많았다.

소총을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꿈. 전역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도무지 제대 특명이 내려오지 않는 꿈. 찾아야 할 일을 하니 시국이 불안정해 한 달을 더 복무해야 한다는 꿈. 참 종류도 가지가지였고, 그 까닭도 그럴 듯해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그 꿈들에서 벗어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나는 군사교육 이수 증명서를 위조하지도 않았고 현역 시절 총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으며 어처구니없는 제대 특명 역시 받지 않았다. 선임에게 못 견딜 정도의 고통을 받은 적도 없다.

대부분의 병사들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 그저 묵묵히, 비겁하게 견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악몽들이 찾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눈에 익은 철책선 풍경이 흐르고 있다. 나도 저들처럼 야간 근무를 썼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갔다.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을 직접도록 들었다. 폭설이 철책을 덮을 정도로 내려면 며칠이고 제설작업에 매달렸다.

거의 매일같이 산꼭대기에서 동해의 일출을 보며 막사로 돌아와 빵을 먹고 잠 들었다. 어떤 밤에는 철책까지 접근한 산양을 만나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그러다 제대 특명을 받고 ‘추억록’을 한 장 한 장 채워나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추억록’이 다시 펼쳐졌다.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선임과 후임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하나둘 튀어나왔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꿈을 꾸며 저 산꼭대기의 날들을 건너갔던 것일까. 모두들 잘 살고 있을까. 벌써 자식을 군에 보낸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추억록’ 속의 풍경과 텔레비전 화면 속, 총기난사의 가슴 아픈 풍경을 흐린 눈으로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십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둘 다 틀림없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이십여 년 전 같은 막사에서 생활했던 한 병사에게서 먹먹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이 악몽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을까.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다고 쉬쉬하는 건 아닐까.

의료칼럼



김수관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때 의약품 광고 때문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문구가 유행이 된 적이 있다. 그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다 그 문구 만큼은 치아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 마음에 든다.

치아는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건강한 신체를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듯이 치아에도 이롭거나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 충치는 대부분 충치균이 원인인 되어 생기는데, 충치균은 입 안의 당질을 분해해 산을 만들어 낸다. 바로 이 산이 차아 표면의 에나멜층을 녹이면서 충치를

오복(五福) 중 최고는 치아

생기게 하는 것이다. 충치는 입안이 건조할 경우에 더 잘 진행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다. 물을 자주 마시면 입안의 충치균과 산성분을 씻어주게 돼 치아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갈증이 나거나 단 음식,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물을 한두 모금 마시는 것이 좋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인 섬유질이 풍부해 치아표면을 닦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작용으로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한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딸기는 치아의 착색이나 변색을 막아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해 치아와 뼈를 구성하는 성분인 인의 효과적인 활동을 돕는다. 또한 무기질성분이 적 분비량을 높여주고 카제인 성분인 입안을 중화시켜 치아 표면을 산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멀치처럼 뼈째먹는 생선, 껍, 시금치 등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다. 등푸른 생선, 연어, 계란 등에는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불소와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 비타민 D가 들어 있다. 호두, 아몬드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치아를 산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을 형성해 주고 비타민 E가 풍부해 치아 뿌리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해조류는 입안을 알카리성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치아는 물론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충치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고 글루코실트랜스퍼라아제라는 치석형성 효소를 저해해 치석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반면 젤리나, 카라멜, 인절미, 사탕, 비스킷 등 점성이 커서 치아에 잘 달라붙는 형태의 음식은 충치균에 당분을 공급하여 산을 만들어나 충치를 유발하고 치석이 잘 생기는 환경을 만든다. 오렌지 주스나 청량음료는 당도도 높고 산도도 매우 높아 치아에 유해한 대표적인 음식이다. 탄산음료는 특히 칼슘흡수를 억제하는 인산염이 많아서 더욱 해롭다. 오징어, 육포, 쥐포, 누룽지 등은 치아를 마모시키고 깨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듯 치아에 유익하거나 해로운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음식만큼 구강 건강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치아와 잇몸

관리 습관이다.

올바른 구강 관리법으로는 첫 번째로 잇솔질을 골고루 하는 것이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잇솔질시 때면 같은 부분(왼쪽 아래 어금니부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서 관찰되는데, 같은 부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는 양치질시 소홀하게 닦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때면 양치 시작점을 바뀌봄으로써 구석구석 잘 닦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칫솔은 구강안에 있는 찌꺼기의 60%정도밖에 닦지 못하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마다 위아래로 긁어 이물질과 플라그를 제거해야 한다. 치아 사이가 많이 넓어진 상태라면 치실보다는 치간칫솔이 효과적인데 이 경우에는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치간 칫솔 선택이 중요하다. 잘 맞지 않은 치간칫솔은 오히려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사후 음식물 섭취 후 바로 잇솔질을 하는 것 보다는 30분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좋는데, 이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산과 당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社說

가로수 방제에 중독성 농약 살포해서야

광주시내 도심 거리를 수놓는 느티나무, 아팝나무 등 가로수에 중독성 농약을 다량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로수 방제에 사용해진 안 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광주시 각 구청이 지난해부터 가로수 방제를 위해 사용한 약제 현황 자료를 따르면 남구·북구·광산구는 어독성(魚毒性) 1급 제품인 로벳틴을 사용하는 등 농약 종류만도 23개 달랐다. 어독성 1급 제품은 저수·상수원 등에 유입되거나 빗물에 씻겨 흘러들어가면 경우 수생동물 등에게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한다.

또 북구와 광산구는 수목(樹木)의 방제 대상이 아닌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약관리법(제19조)상 농약은 작용대상 작물 이외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할 땐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역으로 지자체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구는 지난 1년6개월간 발암의 심물질인 배노밀수화제와 독성물질인 만코지를 뿌렸다는 자료를 제출해놓고도 2년 전부터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 다음날 입장을 번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담당 공무원조차 약의 유해성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구청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을 다량 살포한 것은 인력이나 예산이 적게 들고, 방제하는 데 편리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민들의 건강을 물론 생태계 파괴와 위법마저 자행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인 셈이다.

각 구청이 광주일보 보도(16일 자 1면) 다음날인 17일 독성 농약 대신 목초액 등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동안 시민들 몰래 살포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각 구청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제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행정 불신은 안 된다.

시간강사 퇴직금 소송으로 찾아야 한다니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낮고 차별이 심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간강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광주지법은 16일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모(사망 당시 45세)씨 가족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선대로 하여금 서씨 아내와 자녀에게 모두 15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 교수 임용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선대는 10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했던 서씨가 퇴직 전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에 못 미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년 6개월 단위로 계약해 계속 근로시간이 1년이 넘었고, 사망 이전 4주간 주당 10시간이었지만 학생 지도에 관련된 활동 시간을 포함하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보듯이 대학들은 아직도 시간강사를 ‘저속 노동자’ 취급으로 여기고 있다. 오죽했으면 서씨 가족들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 했겠는가. 대학 측은 시간강사들에 대해 업무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서씨는 유서에서 지도교수가 제출한 논문 54편은 모두 자신이 썼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수천만 원, 1억 원 등 두 번의 채용 비리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큰 충격을 던졌었다.

경찰과 조선대는 서씨가 주장한 논문 대필, 채용 비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부에선 나쁜 관행이 온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국과 대학은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은 물론 비리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썬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중국 진(晉)나라 때 일이다. 한 나무꾼이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가 신선들의 바둑 놀음을 보게 된다. 너무나 재미가 있어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세월 가는 줄도 모른다. 이윽고 집

에 돌아가려는데 도끼 자루가 썩어 있었다. 이런 전설에서 유래한 ‘난가’(문도라질 爛柯, 자루 썩는) 그 후 바둑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흔히 바둑은 인생에 비유된다. 돌들이 부딪치며 싸움이 벌어지고 따라서 술 한 잔과 죽음이 교차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번쯤 반드시 위기가 온다. 변수가 많은 것도 우리네 삶과 비슷하다. 선조들에게 바둑은 풍류(風流)를 즐기는 하나의 도구였다. 특히 사대부들은 금기시화(琴棋書畫)라 하여 바둑을 거문고·글·그림 등과 더불어 4대 필수 교양과목으로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만큼 일상생활에 스며든 바둑 용어도 많다. ‘자충수를 두다’ ‘승부수를 띄우다’ ‘선수를 치다’ ‘승을 빼다’ 등등. ‘쫄수’도 바둑 용어 ‘쫄수’에서 온 말이다.

‘호구’(虎口)도 있다. 돌 모양이 마치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하다. 잡혀 먹힐 줄 알면서 호구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호구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둑은 손으로 나누는 대화다. ‘수담’(手談)이라는 점잖은 별칭도 있었는가.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바둑은 엄청난 인기를 지닌 도박이었다고 한다. 다만 도박으로서의 바둑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다. 한국이 부딪치며 싸움이 벌어지고 따라서 술 한 잔과 죽음이 교차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번쯤 반드시 위기가 온다. 변수가 많은 것도 우리네 삶과 비슷하다.

선조들에게 바둑은 풍류(風流)를 즐기는 하나의 도구였다. 특히 사대부들은 금기시화(琴棋書畫)라 하여 바둑을 거문고·글·그림 등과 더불어 4대 필수 교양과목으로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만큼 일상생활에 스며든 바둑 용어도 많다. ‘자충수를 두다’ ‘승부수를 띄우다’ ‘선수를 치다’ ‘승을 빼다’ 등등. ‘쫄수’도 바둑 용어 ‘쫄수’에서 온 말이다.

‘호구’(虎口)도 있다. 돌 모양이 마치

기 고



박상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

여로부터 복날에는 뭉니뭉니해도 닭이 최고였다. 산란하기 전의 어린 암탉 뺨속에 찹쌀, 밥, 대추, 마늘을 넣고 폭 끓여 먹는 영계백숙으로 무더운 삼복대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신하곤 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전복이 삼계탕 꼭배기 한 구석을 버젓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탄생한 전복삼계탕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 중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초창기 전복삼계탕은 전복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

무더운 복날, 전복의 반란이 시작되다

자 소비족진 차원에서 삼계탕에 전복을 넣어 먹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는 여름철 보양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삼계탕 안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왜 하필 전복이 보신용 재료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일까?

중국에서는 해삼, 전복, 상어 지느러미, 물고기의 부레가 최고의 강정식품(強精食品)으로 인정되어 왔다. 전복을 말리면 아르기닌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 아르기닌은 남자 정액 고형분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중요한 성분이다. 또한, 메티오닌과 시스틴 등 합황아미노산이 풍부해 병을 앓은 뒤의 원기 회복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오징어에 많은 타우린도 전복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전복을 말리면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긴다. 타우린은 담석을 녹이거나 간장의 해독기능을 강화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며 시력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부터 귀하게 대접받아 온 전복은 고서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탐라지’에는

전복이 말, 감귤과 함께 임금께 진상하는 공물 중의 하나로 기록돼 있다. 이건의 ‘제주풍토기’에는 “해녀들이 갇은 고생을 하면서 전복을 따지면 탐관오리의 등 살에 거의 뜯기고 스스로는 굶주림에 허덕인다”고 적혀있어 관리들의 전복 갈취 행위가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전복을 복어(鰻魚)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는데 “살코기는 맛이 달아서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라서 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패류 중에서 가장 맛이 좋고 귀한 식품이어서 ‘패류의 황제’라 불리는 전복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생산되지만 국내산은 제1호 진다.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 97%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남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전복이 전 국민의 여름철 보양과 건강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흐뭇하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지난 3년간 조복을 포함한 직전 1주일 매출을 그 전주와 비교해본 결과 전복은 1주일 사이 매출이 4배(303%)이상 늘어나면서 보양식 재료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생닭은 평소시에도 많이 판매돼 전복보다 ‘복 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할 수 있지만 생닭(189%), 인삼(90%)의 증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로 구분해 살펴봐도 같은 기간 수산물의 매출 신장률이 209%로 가장 높았고, 축산물이 86%, 농산물이 2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보양식품으로의 전복의 성장세가 강력하다 할수 있다. 앞으로는 복날에 삼계탕보다는 전복을 먼저 떠올리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해본다.

늘어지는 무더위에 7월의 수산물인 보양식품 전복을 먹고 몸과 마음을 웅골지게 다스리길 바라며 남녀노소 모두가 활력넘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

간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과 자신이 동일한 배려를 받을 것을 약속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곧 휴가철 여행객들의 관광지 방문이 있을 것이다. 머물고 떠난 자리를 살피서 공중도덕의 성숙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공중도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보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고 행동하자.

▲김성중·광주시 서구 마루동

공중도덕 지키는 것은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

어느 더운 날, 편의점 야외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편의점 앞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특 하고 뒀가를 떨어뜨리기에 보니 과자봉지였다. 아이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며 걷고 있었다.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과자봉지 떨어뜨린 것을 몰랐나 싶어서 ‘학생, 과자봉지 떨어뜨렸네.’하고 말해주니 ‘버린 거에

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쓰레기를 왜 길거리에 버렸어?’ 했더니 ‘그냥요.’ 한다. 그 대답에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렴.’ 하니 ‘네.’ 하고는 봉지를 주워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던 길을 갔다.

길거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